

David Turner 박사, 요한복음, 세션 15,

요한복음 13:1-30

© 2024 데이비드 터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요한복음을 가르칠 때 Dr. David Turner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15회 고별강론, 서론, 발을 씻음과 배반, 요한복음 13:1-30입니다.

요한복음에 대한 비디오 시리즈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요한의 문학적 구조를 보여주고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요한복음을 12장까지 표징의 책으로 분석한 다음 13장부터 17장까지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장까지의 예수님의 공적 사역인 표징의 책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요한의 수난에 앞서 13-17절의 영광의 책, 즉 18-20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징의 책과 영광의 책 사이에 있느니라. 우리는 표징의 책을 보았고 지난 비디오에서 12장 37절에 다소 슬프고 애처로운 말씀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예수께서 그토록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고맙게도 그 뒤에 나오는 몇 구절은 그 진술이 보편적인 방식에서 조금 상대화되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개 사역은 요한복음에서 끝났고 상황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지 않았으며, 바리새인들과 귀족 제사장들의 종교 지도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체포하고 처형하기 위해 더욱 힘썼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예수께서 알지 못하는 어떤 것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나머지 부분은 우리 주님이 13시부터 17시까지 그의 출발을 위해 그의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의 부재 또는 그들과의 완전한 작별 인사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 성령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육체적 임재에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임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비디오에서 성령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13장에 대한 첫 번째 비디오이므로 소위 다락방 담론을 소개하는 데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작별 담화, 당신이 무엇으로 부르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씻어주셨는지 살펴보는 데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별 담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로 이 비디오를 시작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첫 번째 슬라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다락방 담론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며, 그렇게 부르기 위해서는 요한에게 없는 어떤 정보를 요한에게 가져와야 합니다.

물론 다락방은 마가복음 14장과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의 수난 이야기에서도 언급됩니다. 사도행전에서 기억하실 수 있듯이, 제자들은 분명히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예수님의 승천과 오순절 사이에 같은 다락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물론 요한은 이 담화가 예루살렘에서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곳이 예수님이 발견된 곳입니다. 그러나 18장 1절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이동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겐세마네 동산으로, 그러나 그 외에는 내가 아는 한 적어도 이 모임의 장소에 대한 더 이상의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다락방 담론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너무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전체적인 성경 내용의 관점에서 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지 요한을 묘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의 용어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또 다른 용어는 작별 담화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John의 내용에서 더 많은 것을 이끌어내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아이디어가 John의 아이디어와 어느 정도 일치하지만 완전히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이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떠나고 있는데 그들은 그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일종의 이별인 셈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든 그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최종적인 의미에서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서는 이 구절에서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든 그들을 다시 보게 될 것과 그들에게로 오실 것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가 부활 후에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오실 것인가, 아니면 종말론적인 때에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영을 통해 영구적으로 그들에게 오실 것인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자료에서 볼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실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별 담화인가요? 예, 아니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유언의 담론으로 묘사했습니다. 학자들은 유언 담론이라는 용어를 통해 이 자료가 말하자면 예수의 마지막 유언이자 유언임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그는 마치 임종 직전에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끝부분에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이런 식으로 쓴 것처럼, 아마도 신약의 베드로후서도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예수님은 정말로 떠나시며, 여기서는 그의 죽음이 가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유사점이 있지만 일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예수의 성약이라고 불러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학적으로, 만약 우리가 그분의 유언이나 그들에 대한 작별의 개념을 강조한다면, 그분은 절대로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단순히 떠나지만, 그의 부재 시 그들을 돌볼 또 다른 도우미 옹호자를 그들과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옹호자, 그 조력자 성령은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임재를 조절하거나 변화시킬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며, 성령은 형이상학적으로나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그들이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지를 생각나게 하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통해 기능합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그들을 새로운 장, 즉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장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들에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알리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오신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담화를 다락방이나 이별 담화가 아니라 귀환 담화까지의 현존의 변화로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쩐지 별로 연관성이 없어서 그것이 인기를 끌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눈길을 끄는 용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담론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학에 대해 생각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먼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지리적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산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산 남쪽 언덕을 다윗성이라고 부르며 예루살렘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곳을 시온산이라고 자주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루살렘의 또 다른 부분인 서쪽 언덕이 있습니다. 이곳 계곡 반대편에는 시온 산이라고 불립니다. 요한복음 13장과 공관복음 평행선에 나오는 많은 자료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는 곳은 이 다른 시온 산, 즉 이 용어를 보다 현대적으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 이곳에 있다고 추정됩니다.

현재의 자파 문(Jaffa Gate) 쪽으로 더 올라가면 헤롯 궁전이 있다고 믿어지는 곳이 있는데, 아마도 로마 총독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곳에서 어울렸을 것입니다. 예수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청문회를 가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서쪽 언덕에 있는 이 지역, 오늘날 종종 시온

산이라고 불리는 곳은 아마도 공관복음 전통에 따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신 곳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예수께서 아마도 내가 조금 전에 포인터를 가졌던 곳보다 더 북쪽에 있는 겐세마네 동산에 도달하기 위해 아마도 이 길로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곳은 전통적으로 겐세마네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꽤 형편없어 보이는 아주 오래된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따라서 이 지도를 가져와서 아래에서 위로 뒤로 기울이면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시온산, 서부언덕을 바라보는 것이며, 이곳에 설치된 대형 설치물을 Dormition Abbey라고 합니다.

다락방을 기념하는 곳으로 추정되며, 반드시 역사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는 전통적인 장소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오늘날의 성 베드로 갈리칸투 교회(Church of St. Peter Gallicantu) 근처의 고대 포장 도로에 대한 사진은 수탉이 우는 것과 관련하여 매우 이상하게 들리는 단어가 있는데 아마도 동쪽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서쪽 언덕의 경사면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지역을 방문하시면 고고학자들이 결론짓고 있는 고대 계단이 아마도 예수 시대인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계단을 올라다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계단을 내려다보면 대략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Dormition Abbey에 들어가면 전통적으로 말하면 다락방과 관련된 훌륭하게 조각된 돌들로 가득 찬 크고 아름다운 방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매우 흥미로운 까마귀 조각상이 있습니다. 실례지만 수탉입니다. 세 번 울게 될 수탉입니다. 제 생각엔 여기에서 좀 보기 힘든 그림은 베드로가 여종과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따라서 오늘날 이야기가 어떻게 이해되는지에 대한 약간의 배경 정보와 전경 정보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관광객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3-17장을 공관복음 전통과 연관시키는 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절을 읽을 때 NIV가 그것을

번역하기 때문에 유월절 직전이었고 여기 요한복음에 묘사되고 있는 식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관복음에서처럼 반드시 유월절 식사로 명시적으로 묘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이유가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에 관해 선언한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양이라는 선언이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져 요한이 그 어린 양과 같은 다른 양을 갖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월절 양은 요한복음에서도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만 오히려 모든 양의 이미지는 예수님 자신에게 집중됩니다. 내 생각에 그것은 그럴듯하다.

요한이 이 식사에 관해 말하는 것은 공관복음 전통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며, 그러한 일을 다룰 수 있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자들이 그것에 관한 많은 자료를 썼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에 대해 모두 다루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작업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비디오에서 제한된 시간 동안 우리가 다룰 내용은 아닙니다. 나는 요한이 어떻게든 다른 연대순 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 요한복음 13장에서 유월절 식사를 묘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가 유월절 식사 전날 밤에 있었던 전혀 다른 식사를 묘사하고 있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물론 이것의 일부는 우리가 공관복음 전통을 읽을 때 유월절 전통의 잔 중 일부를 사용하여 유월절 식사로부터 주의 만찬의 명확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지만 요한복음 13장에는 그런 제정 예식이 없습니다. 여기서서는 확실히 생각할 여지가 있고,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고, 생각나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연구와 조사를 하고 싶다면 여기서 요한의 접근 방식이 그의 문학적 주제, 유월절 식사의 신학적 목적 측면에서 다소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서가 어떤 종류의 책인지에 대한 초기 논의로 돌아가게 합니다. 만약 그 책들이 단순히 예수 생애의 모든 사건에 대한 철저한 연대기를 제공하려는 책이라면 확실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책들이 애초에 그런 종류의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엄선된 역사적 전통을 알려주는 책들인데, 그것은 참으로 사실이지만, 이러한 전통들은 저자의 목적,

저자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와 결부된 신학적 의미 때문에 주어진 것이며, 그런 다음 창의적으로 문학적으로 훌륭한 방식으로 가르치고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역사가 우리에게 이 복음서를 갖게 된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이는 복음서가 역사적이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단순히 역사적인 것 이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세족식에 대한 공관전통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세족식이 아닌 떡과 잔의 의식이 있습니다. 이는 요한의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식사의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 발을 씻는 전통을 관찰할 때,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저녁 식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예수님은 시간을 내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기 이 장에서 기대는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우리는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가족이 예수께 기름 부음을 받는 다음 장에서 우리가 찾을 것입니다. 이것이 종종 트리클리눔 식사라고 불리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triclinium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세 개의 소파를 의미하는 일종의 라틴어 형태의 단어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고대에는 특별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집에 트리클리니움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극도로 부유한 사람들은 집에 이런 식으로 꾸며진 방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이와 같은 식사를 더 많이 먹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곳은 U자 모양의 테이블이 있고, 한 테이블은 바닥에 있고 나머지 두 테이블은 U의 윗팔이 되어 식사를 많이 하는 아름다운 식당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방에서 정원을 보거나 벽에 아름다운 프레스코화를 걸고 왼쪽 팔꿈치로 기대어 오른손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왼손잡이가 아닌 이상, 그렇다면 그들은 아마 그 반대 방식으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합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대어 식사하는 스타일을 언급하는 신약성경 본문이 많이 있으며, 분명히 이들 모두는 트리클리니움 스타일로 먹는 식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고 발표하신 예수님에 대해 읽을 때 베드로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하는 그럴듯한 배경, 아마도 훨씬 더 그럴듯한, 너무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John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25절을 보면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기대어 그 두 사람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그는 예수님께 “주님, 누구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왜 그 사람은 그에게 등을 기대야 했을까요? 글쎄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대한 많은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입니다. Dan Brown의 Da Vinci Code를 읽지 않는 한 Da Vinci는 바로 여기 이 개인으로서 사랑하는 제자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었다면 거기에서 읽은 내용을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 큰 실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트리클리니움 스타일의 식사는 아마도 이와 좀 더 비슷해 보였을 것입니다. 고대 로마의 고대 사진 중 일부를 보고 트리클리니움에 대해 조금 연구하면 이 특정 기사에는 각 사람이 자신의 머리가 가슴에 접근하는 자신의 아래에 있다고 간주되는 인용문이 있습니다. 이는 다소 어렵습니다. 문장을 이해하기는 쉽지만, 풀어보면 요한복음 13장과 25절에서 방금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 등을 기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말하는 것은 당신이 기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당신보다 우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기대어 있던 사람이 뒤로 기대어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라면 테이블에 앉는 사람들의 배치도 세심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테이블에 이렇게 잠시 기댄다면 카메라가 저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관찮은 것 같으니 이렇게 기댈 것 같아요. 오른손으로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면, 식사를 하는 사람이 식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어떻게 이해하든지 아래로 내려가는 식으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일 것이다.

이 사람은 나와 대화하려면 어깨 너머로 몸을 기대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내가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기대어 있으면 그 사람은 나보다 우월한 사람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떤 의미에서는, 13장 25절에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께 등을 기대고 그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은 왼쪽 어깨 너머로 이런

식으로 지나갔거나 완전히 돌아섰을 것입니다. 오른쪽 어깨 너머로 예수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문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온라인에서 찾은 이 특정 소스에 묘사된 트리클리니움 식사는 확인하고 싶다면 여기 주소를 참조하세요. 각 테이블에는 일반적으로 9명이 식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3명이 아닌 4명이 한 식탁에 앉았을 것입니다. 각 식탁의 첫 번째 사람(라틴어)이 수무스(sumus) 이고 중간에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 에무스(emus)가 될 것입니다. 테이블마다 사람이 가장 적다. 따라서 전체 연회, 전체 식사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사람은 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 앞에서 뒤로 기대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최후의 만찬이 다른 방식으로 묘사되는 것을 당신이 자주 보는 방식이 아닙니다. 만약 실제로 요한복음 13장이 최후의 만찬이라면, 요한복음 13장이 묘사되는 것을 자주 보는 방식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요한복음 13장이 이 식탁에 예수님과 함께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현대 서구 문화에서는 이것을 상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앙에 계시고 사랑하는 제자는 예수님을 등지고 기대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여기에 계시고 사랑하는 제자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에 나머지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이 문제에서 완전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이미지에서도 우선 순위가 왼쪽에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보아도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와 함께 이 위치에 탁자 중앙에 놓여 있습니다..

나 역시 그것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것이 맞다면, 이것이 일반적인 질서의 방식이었다면, 예수님은 가장 권위 있는 분,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분으로서 여기 1순위에 계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는 두 번째가 있는 곳에 있었을 것이고, 나머지 제자들의 다른 배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쉽게 음식을 전달할 수 있는 근처 어딘가에 유다가 있었다면, 베드로가 어느 정도 쉽게 'pss, 요한, 누구입니까?'라고 말할 수 있는 근처 어딘가에 베드로가 있었을까요? 알아내다. 그 이상은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대에는 triclinia에 대한 다른 묘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화산 폭발의 폐허인 폼페이에서 발견된 돌 트리클리니움(triclinium)에서 잘라낸 일종의 나무 조각입니다. 온라인으로 둘러보면 복제품을 볼 수 있거나 바로 이 방의 사진을 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나사렛 바로 북쪽에 있는 세포리스 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트리클리니움을 묘사한 바닥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3인용 소파는 아니지만 U자 형태의 소파이다. 이 낮은 소파에는 각각 세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여기 팔꿈치를 괴고 누워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당신은 작은 물건이나 포도주 등을 돌보는 하인들을 봅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것으로부터 정확히 누가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폼페이의 프레스코화 역시 우리에게 그에 대한 또 다른 그림을 제공합니다.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기대어 있지 않고 거의 더 높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은 약간 어렵습니다. 온라인에 유포되는 이미지 하나, 많은 곳에서 본 이미지이고 저작권도 없고 이 이미지로 돈을 벌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누구의 소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것이 묘사되는 매우 일반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여기에 예수와 유다와 함께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어떻게든 요한의 주의를 끌고 머리를 흔들거나 요한에게 뭔가를 함으로써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알잖아, 물어봐, 물어봐, 무슨 일이야, 물어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그러므로 그런 경우에 예수께서는 그 빵 한 조각을 가져다가 어깨 너머로 유다에게 넘겨주셨을 것입니다.

문제는 만약 이런 배치가 그랬다면 예수의 지위가 유다보다 열등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 무엇을 만들까요? 우리는 관습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대에 테이블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릅니다. 우리는 연회에 각기 다른 수의 개인을 가지고 있는데, 각 테이블에는 세 사람이 있는데, 이는 일종의 표준적인 방식으로 보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요한복음 13장에 기대어 앉아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 외에는 어떤 배열이 가장 의미가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기대는 가슴으로 뒤돌아 보는 사람이 당신의 상사라는 원칙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머리로 식탁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로 본다면, 그분은 자신을 주인, 주님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 발을 씻었더라면.

그러므로 만일 그가 실제로 식탁에서 가장 높은 권위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그것은 더욱 적절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미지를 작동 방식으로 사용하면 예수는 이 이미지가 베드로가 있는 곳에 있을 것이고 상황은 이 순서에 따라 가장 큰 것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는 이 식탁의 중앙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베드로가 다음 사람이었을지, 아니면 이 모든 배열에서 유다가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확신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것이 확실히 알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뒤에 다소 명확한 추론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론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원한다면 이를 더욱 완벽하게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13장뿐만 아니라 담론 전체를 생각해 보면 이 구성이 우리에게 어떤가요? 멈춰서 생각해 보면 담론에는 서문과 후주가 있어 올바른 담론, 즉 정말 담론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락방 담화나 고별 담화, 또는 내가 말한 대로 귀환

담화까지의 현존의 변화가 이 담론이 실제로 13장부터 17장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실제로 담화의 첫 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기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심으로 모범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말을 하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담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아시다시피, 설교는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기도는 설교가 아닙니다. 기도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다음에는 제자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그의 중보입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담론은 실제로 예수께서 성령의 오심을 강조하시는 13장부터 16장까지의 부분이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담화는 13장에서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이 떠나실 때 그분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떠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16장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7장 마지막에 나오는 기도에서 그분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이 그분의 제자임을 알 수 있도록 그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새 계명에 대한 가르침은 담화를 시작하는 흥미로운 방법이자 모든 것이 끝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17장의 기도의 끝은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끝내는 흥미로운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13장에서 사랑의 계명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17장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연합 선언문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된 것은 그들로 나를 믿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두 개의 북엔드는 전체 담론이 구성되는 방식으로 많은 의미를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17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 한

줄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13장에는 발을 씻는 일이 있는데, 이는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로 이어지며, 나중에는 배반자가 누구인지에 관해 예수님과 사랑하는 제자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일단 담론에 들어가더라도 13-16장의 끝 부분에는 주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은 제자들이 던진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13-36장에서는 베드로가 질문을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로부터 14:8, 14:22라고 부르고 싶다면 다른 중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16:17-19에서 제자들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실제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궁금해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따라서 담론에는 상호작용적이거나 대화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제자들과의 상호작용 없이 예수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1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중간쯤에 위치가 변경됩니다.

14:31 예수께서는 일어나 가자고 말씀하신다.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그가 걸어가면서 나머지 부분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이 다른 장소에 왔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떠나 기드론 강을 건너 겐세마네 동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18:1 예수께서는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떠나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 서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여기에 정원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담화의 전체적인 흐름과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의 습관대로 요한복음 13장 자체를 살펴보면서 문맥이 흐르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처음 세 구절에서 식사의 성격을 알 수 있는데, 유월절 전의 것으로 묘사되는데, 정확히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10장, 특히 여기 13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 복음 전반에 걸쳐 자신의 양들을 돌보신 방식을 고려하면 그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12장에서도 때가 이르렀다는 표현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마지막 표현은 몇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사역이 끝날 때까지 그들을 완전히 사랑하셨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분이 그들을 완전히 사랑했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n급까지 완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절과 5절에서 발을 씻는 행위를 보게 됩니다. 그는 식사를 마치고 일어났다.

그는 겹옷과 겹옷 등을 모두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부었습니다. 분명히 그분은 대야를 제자들 각자에게 가지고 가서서 그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시고, 몸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 주셨을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에게 다가갔을 때, 베드로는 먼저 말하고 나중에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모든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을 말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 발을 씻으시는 겁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제 발을 씻어 주시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라고 대답하셨다. 베드로는 상황이 완전히 변칙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이 항의하며 당신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세례를 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마태복음의 예수 세례 버전과 비슷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빈티지 피터 맞죠? 피터는 결코 어설픈 일을 하지 않습니다. 피터는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확신하나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피터는 아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단호하게 대답하신다.

그래서 베드로는 8절에서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위해 이전 전략을 재빨리 포기합니다. 베드로는 전혀 씻지 않는 대신 이제 발만 씻는 것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피터가 이렇게 뛰어다니는 걸 보면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회에 더 많은 베드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들 중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가끔은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설명하십니다. 그들의 몸 전체가 깨끗하고 당신도 깨끗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을 씻는다는 상징은 단순히 겸손의 모범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항의한 이유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그것이 단순히 겸손한 것보다 더 많은 관련이 있음을 그에게 보여 주고 계십니다. 클렌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는 아니지만 여러분은 깨끗하다는 진술이 뒤따릅니다. 그분께서는 자기를 배반할 사람이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깨끗하지는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발을 씻는 것의 일부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불길한 예감, 신비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시적으로는, 잠시 후에 여기에서 배반자로 드러날 사람이 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발을 씻으시는 일과 베드로와의 대화를 마치시고 12절부터 20절까지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십니다. 자리에 서서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한 일을 이해합니까?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주라 부른다. 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이제 너희의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나는 여러분 앞에 모범을 세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해 준 것처럼 당신도 해야 합니다.

진실로 종은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며 사자도 그를 보낸 자보다 더 크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자신을 아버지의 사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점을 고려하면 흥미롭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것을 알았으니 여러분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분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지식만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일을 한다면 당신은 축복받은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학술 활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우리가 명심해야 할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이 게임. 우리는 단순히 통찰력과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전사하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미래에 자신의 삶에서 따라야 할 본보기나 모델, 방법이 될 무언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점을 여기서 매우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참으로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과 같은 지위를 갖지 못하지만, 여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종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발을 씻는 것에 대한 첫 번째 논의에 이어 배반자에 대한 불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에서 그는 “내가 너희 모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내 빵을 나눠준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 일이 닥쳐도 너희가 내가 바로 나인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즉, 그는 상황이 나빠지면 그것이 나에게 놀라운 일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내가 이미 당신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21절에서 예수께서는 심령에 괴로워하셨고, 이전 절에서 이미 언급한 유다의 배반에 대한 명시적인 발표를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1절이 앞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아주 많은 말로 그것을 바로 말합니다.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중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에 놀라며 예수께서 누구에 관해 말씀하시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에게 손짓을 함으로써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이 예수께 누구인지 물어보게 만든 것 같습니다. 25절에서 그는 예수님께 기대어 그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누구인지 그렇게 많은 말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는 내가 빵 조각을 접시에 찍어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아마도 유월절 식사에 관례가 있을 것인데, 이것이 유월절 식사로 묘사되는지, 즉 빵을 쓴 나물이나 꿀로 만든 양념에 담그는 것이 매우 달콤하다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그 용어는 haroshef 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빵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고, 유다가 빵을 받자마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배신에 대한 이전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이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단지 유다에게 네가 해야 할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변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돈이 있으므로 나가서 유월절에 쓸 물건을 사러 가거나 가난한 자들에게 제물을 주려고 하는 줄로 생각하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가장 어두운 진술 중 하나를 보게 됩니다. 유다가 빵을 먹자마자 밖으로 나갔더니 때는 밤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요한복음 13장에 대한 논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유월절과 관련된 몇 가지 추가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비디오에서는 여기 요한복음 13:31이 설교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을 생각해보면 흥미로운 그림이 있습니다. 피터의 묘사가 피터와 대화하는 방식에 대한 역사 전반에 걸쳐 찾을 수 있는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발을 씻으려고 합니다. 그는 발목에 손을 얹고 있지만 피터는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여기서 일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Bondone은 그곳의 700년 된 그림에 그것을 묘사하고 싶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발을 씻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성경적, 문화적 배경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 제사장들은 때때로 발과 손을 씻어야 했지만, 주로 발을 씻는 것은 나머지 사람들을 위한 의식적 정결의 문제라기보다는 환대의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18장에는 여호와와 사자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온 것을 암시하는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발을 씻어 주겠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여러 곳과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에서 우리는 신약성경에 이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한 부자가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 발을 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디모데전서 5장은 과부들과 교회의 지원을 받기에 합당한 과부들에 관한 장입니다. 디모데 전서 5장 10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의 발을 씻음으로써 후대를 베풀어 그리스도인의 덕을 나타낸 과부들은 궁핍한 경우에 교회의 지원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을 포함해 성경에서는 발 씻는 것에 대해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손님이 있을 때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흙길을 걷는 것이 꽤 지저분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거리에는 소, 당나귀 등 수많은 동물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솔직히 말해서 거름 더미 등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주변에 쓰레기가 널려 있어서, 많이 외출하고 나면 발이 더러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올 때 진정으로 휴식을 취하기 전에 먼저 깨끗이 청소하고 싶을 것입니다.

좋은 집을 지키는 사람은 사람들이 지저분한 발로 돌아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것이 훌륭한 환대를 보여주는 하지만 손님의 발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집주인에게도 이로운 일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3장에 묘사된 배반은 상호텍스트적으로 묘사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있는 이 구절을 취하여 시편 41편을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상하는 방식으로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NIV는 이를 번역합니다. 나에게 등을 돌렸다. 나에게 등을 돌리는 것은 그의 발꿈치를 나에게 대고 걷어차거나 등을 걷어차는 것과 같은 비유를 취하는 일종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편 41편의 인용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잠시 시간을 내어 시편 41편을 보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편 41편을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것과 메시아적 문서로서의 시편의 성격에 대해. 내 생각에는 이 중 많은 부분이 다소 단순하게 언급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시편을 마치 예수님에 대한 일종의 예언인 것처럼 보고 있으며 시편의 직접적인 문맥과 이스라엘 예배에서의 시편의 사용을 무시하고 실제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많은 계정에 적용됩니다.

시편 41편을 다시 보면 이사야 41장에 있었는데,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 41편.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은 대부분 애도의 시편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잡으러 나온 사람들에 대해 불평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가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기도하는데, 이것을 엄밀하게 생각한다면 아마도 다소 충격적일 것입니다. 메시아 시편, 예수님에 관한 시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원수들이 나에게 대하여 악의를 품고 이르기를 그가 어느 때에 죽고 그의 이름이 없어질까 하느니라 그 중 한 사람이 나를 만나러 오면,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비방하는 말을 하면서 거짓된 말을 하고, 나가서 그것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있지만, 자신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적들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나에 대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심지어 사악한 질병이 그를 괴롭혔으며 그는 자기가 누운 곳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의 질병은 불치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언급하신 시편 41편 9절의 구절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나의 친한 친구, 내가 신뢰하던 사람, 내 빵을 나눠 먹던 사람이 나를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함을 인하여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의 성실함으로 나를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 41편의 직접적인 문맥을 볼 때, 시편 기자는 자신을 잡으려는 적들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자신의 완전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적들로부터 구원하시고 장차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그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시편을 다시 언급하시고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에게 발꿈치를 들고 있는 이 구절을 선택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께서 시편을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으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 시기에 시편 기자의 삶에서 흘러나온 것이기 때문에 시편을 고려하지 않으셨다는 관점을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시편 기자가 느꼈던 배신감이 예수님께 적용되면서 한 단계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즉, 시편 41편에 등장하는 다윗의 인물, 즉 역사적으로 경험한 인물의 모든 배반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배반에 비할 바가 못 되는 배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시편 41편에서 다윗 왕이든 다윗과 관련된 다른 사람이든 역사적 다윗 인물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유형의 일이 이제 예수님의 삶에서 훨씬 더 큰 방식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다윗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다윗의 궁극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일종의 예언으로 받아들이고 직접적으로 말하면 원래의 맥락을 망각하기보다는 시편에 원래 역사적으로 반영된 배반이 예수님의 배반을 예고하는 것임을 주목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신도 유다의 손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편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표제에서 다윗의 시편으로 묘사된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표제들은 다소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원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편이 적어도 단어의 어떤 의미에서 다윗과 관련이 있다면, 그가 그것을 썼다는 뜻이든, 승인했다는 뜻이든,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가졌던 경험을 반영한다는 의미이든, 우리는 아마도 그것이 다윗을 언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데이비드의 인생에서 일어난 특정한 사건.

비록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지는 못하더라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기간과 그의 조연자 아히도벨이 어떻게 다윗을 따르지 않고 압살롬의 조연자가 되었는지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서는 적어도 그럴듯해 보입니다. 사무엘하 15장부터 17장까지에서 이에 대해 읽을 수 있으며, 특히 아히도벨에 관해 이야기하는 흥미로운 부분은 15:31, 34, 16, 20-23과 17장에 있는 몇 구절입니다. 한동안 압살롬은 그 조연을 받아들였으나 나중에 압살롬은 다른 조연자에게서 조연을 듣고 아히도벨이 자기에게 한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면 아히도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바로 유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해석학 교수들이 때때로 모형론이라고 부르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구약의 사건에 신약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예수가 해변에 몸을 맡기고, 말하자면 시간의 해변을 걷고, 이스라엘이 역사적 시대에 남긴 발자국에 발을 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신뢰할 만한 해석학이라고 생각하든 아니든 간에, 나는 그것이 신약성서에서 다윗과 구약성서에 대한 예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가끔 사용된다고 생각하며, 여기서는 적어도 그럴듯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왕의 삶에서, 적어도 다윗의 인물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돌이켜보시고 생각하시는 배반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시편 41편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성서에서 다윗 왕조의 전임자에게 일어난 일에 비추어 지금 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 41편에서 다윗 왕이 겪었던 배반에 비추어 자신의 삶, 자신의 배반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다윗을 배반하고 자살한 아히도벨의 배반인지 아닌지 본문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적어도 내 생각에는 그것은 그 구절에 대한 그럴듯한 이해이다. 좀 더 생각해 보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발 씻김을 어떻게 할까요? 발을 씻는 것에 대해 말하는 요한복음 13장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분명히 본문 자체에서 본문은 상호 봉사로서 나타나는 겸손과 겸손의 모델입니다.

즉,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진정한 겸손을 지닌 사람이라면, 우리는 겸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다 써버릴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높이는 일을 하는 대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높이고 그들을 돕는 데 우리 삶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 가운데서 예수께서는 고대 문화에서 일반적으로 집의 낮은 사람이나 종이 손님을 위해 했을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처음에 발을 씻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수건을 걸치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지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 씻기에는 충분한 관심을 끌지 못하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발을 씻는 것이 일종의 정화 행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라고 항의했을 때, 예수님은 여기서 정결케 되는 일과 관련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의 온 몸을 씻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이미 깨끗해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발을 씻어주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 이미지에 비추어 볼 때 예수께서 오늘날 우리가 신학적으로 진보적인 성화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가 이미 자신의 제자가 되었고 깨끗해졌음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생각하신 것일까요? 말하자면 그는 예수를 따르기로 개종함으로써 목욕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잘못된 반응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청산하는 일뿐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명제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요한 1서가 죄를 믿는 신자에 대해 말할 때 묘사하고 있는 내용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서는 요한일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이것이 텍스트의 유효한 상관 관계라고 생각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께서는 정결함의 의미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발을 씻는 일이 십자가를 예표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을 씻는 것 자체는 구속적인 사건이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극도로 겸손해지는 일을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발을 씻는 것보다 더 겸손하게 만드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 중 하나는 참으로 십자가 처형일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십자가 처형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굴욕적인 일입니다.

발을 씻는 것은 아마도 십자가의 예표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머물고 있는 다음 몇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제자들을 사랑한 가장 최근의 예는

발을 씻어 주고 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를 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의 앞부분인 첫 두 구절에서 그분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후에 그들을 끝까지, 쓰라린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을 완전히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그분의 온전한 사랑은 그들의 발을 씻겨 주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한 그분의 온전한 사랑에는 확실히 그들의 발을 씻어 주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들을 위해 행하신 마지막 구속 행위였습니다. 오늘은 발 씻기에 관해 무엇을 할까요? 오늘 이 행사를 어떻게 제정할까요? 물론, 우리가 서로 겸손하게 봉사해야 한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섬기고 우리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때때로 청소년 수련회에서 젊은이들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교회를 봅니다.

우리는 성직자가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교회를 봅니다. 아마도 일년에 한 번 수난주간 동안에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때때로 교회에서 드라마처럼 사람들에게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진행되는 실물교훈입니다. 최근 제가 참석한 결혼식에서도 신랑 신부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곳에서 발을 씻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발까지 씻어주는 곳을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비록 시간이 꽤 걸리고 결혼식을 꽤 길게 만들었다고 해야 하겠지만요.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발을 씻는 것이 거의 세례식과 성찬식 수준의 교회의 일반적인 관행임을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종종 메노파 전통, 평화 교회 운동, 그런 교회에 묶여 있는 교회에서 행해집니다. 아마도 매달 한 번씩 또는 3개월에 한 번씩 교회의 빵과 잔 예식과 관련하여 그들은 실제로 모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의식. 나는 개인적으로 예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의도하셨는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거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확신하지도 않습니다. 겸손한 방법으로 서로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대한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단순히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이 아니라 두 가지 매우 놀라운 이미지가 우리 마음 속에 깊이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심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둘째, 누가 자신을 배반할 것인지를 우리 주님이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발을 씻어주시는 것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수록, 그분이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인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가르칠 때 Dr. David Turner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15회 고별강론, 서론, 발을 씻음과 배반, 요한복음 13:1-30입니다.